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⑧ 원효봉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원효 스님을...

원효봉은 해발 505m의 봉우리로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다. 원효대사가 수행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또는 북한산 아래서 원효봉을 이루는 산을 올라다보면, 부처님이 앉아계신 모습이 보인다. 그 위로 원효봉의 봉우리는 담집처럼 지붕을 이루었고, 아래쪽으로 치마바위는 좌대를 형성하였다. 치마바위는 원래 원효암 여산신(女山神)의 치마였는데, 이것으로 자리를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여 연화좌(蓮華座)를 이루었다고 한다. 연화좌는 연꽃모양의 대좌로 연화대라고도 불리며, 불·보살의 앉는 자리를 가리킨다.

걸음을 멈추고 길 가에 앉아 쉬고 있던 원효 스님은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다. 여러 능선 사이로 봉우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하늘의 햇빛을 혼자서만 받고 있는 듯, 그 봉우리는 온통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다. 봉우리는 담집처럼 지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아래쪽으로는 넓적한 바위가 놓여있는데 그 모습이 꼭 연화대를 빼어 닮았다. 게다가 그 봉우리 밑 능선은 부처님이 앉아계신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영락없는 부처님의 처소였다. 순간, 눈을 반짝이던 원효 스님은 미처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서둘러 일어나 산으로 향했다. 그 봉우리로부터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스님을 이끌고 있었다. 여러 날 갈아입지 못한 듯 옷은 납루하기 이를 데 없었고 짙어진 바깥은 해졌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고, 움직이는 발걸음 마다 당당하고 힘이 있어 조용하던 산 속이 흔들리는 듯 했다. 원효 스님은 이 땅에 불법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해달라는 원을 세운 후 전국의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곳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 경성도 금정산 봉우리에서 여러 달, 충청도 가야산 봉우리에서 다시 여러 달을 쉬 없는 정진 이었다. 이제 한강 일대에서 수행하기에 적당한 봉우리를 찾아 북한산에 들어선 참이었다.

그동안 신라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불교인 백성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불경 또한 어려운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이해할 방법도 없었다. 원효 스님은 안타까웠다.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는 신라불교가 부디 민중속으로 자리하게 되길 염원하며 불법을 통해 그들과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았다. 여느 스님들과 달리 좋은 옷도, 신해진미도 마다하고 저자 거리로 나가 백성들과 어울렸다. 그들과 함께 춤추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들고 깨어났다. 원효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부르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반 백성에게 '나무라비타를 판세음보살'을 알려준 것이었다. 비록 불경을 읽지 못하더라도 이 주문만 되풀이해서 외우면 누구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존재하며 귀하고 천한 생명이 따로 없음을 일깨워주었다.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에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원효 스님은 또한 경전에 해석을 달고 뜻을 풀어 쉬운 말로 다시 쓰는 일을 하는 틈틈이 산속의 봉우리를 찾아 수행했다. 원효는 한 지역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불법을 만나게 해주고 나면 곧 다른 기도처를 찾아 떠났다.

그동안 원효 스님이 수행하던 암자만도 전국에 수십 개였으며, 앉아서 참선하던 봉우리 또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원효 스님이 수행처로 삼은 곳은 한결같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곳이었다. 너무 험하거나 거친 봉우리 보다는 부드러운 면서도 강한 포용의 힘이 느껴지는 곳을 찾았다. 들판에 우뚝 솟아 산세가 당당한 가야산 봉우리가 그랬고, 금정산의 봉우리 또한 독보적이고 품위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 봉우리라야 자신과 함께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마침내 원효 스님은 북한산에서 한 봉우리를 찾아냈고 그곳을 향하여 산을 오르고 있었다. 분명 산 아래에서 올라다 본 그 봉우리는 그런 기개를 가지고 있었다. 계곡을 옆에 두고 바위를 타고 올라다순에 봉우리 정상에 다다랐다.

원효, 불법 널리 퍼기 위해

전국의 상서로운 기운 갖은곳 찾아

인중불교·불국토 서원 세우며 정진한 곳

과연 봉우리는 당당했다. 봉우리 정상에는 치마를 펼쳐 놓은 듯한 넓은 바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보았던 연화대 모양의 바위였다. 그곳에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북한산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발 아래로 굽어지는 한강을 품고, 위로는 바위 능선을 두루 감싸 안을 듯 넉넉한 이 바위 봉우리가 원효 스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바로 이곳이었다. 마치 봉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원효 스님과 같은 원을 세우고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함께 기도하리라. 민중불교가 실현되고 신라가 불국토가 되는 그 날까지 정진 또 정진 하리라, 북한산 봉우리 위에 앉아 원효는 다짐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원효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고, 사람들은 원효 스님이 앉아 수행하던 봉우리마다 '원효봉'이라 이름 지어 그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게 되었다.

원효 스님은 그의 이름처럼 '진리의 첫세벽'이 되어 민중의 스승이 되었다. 그가 남긴 <대승기신론소>나 <금강삼매경론>등 위대한 저서들은 당시의 신라는 물론 당나라와 일본의 불교에 까지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까지도 서양과 유럽에서 원효 스님의 사상과 저술을 연구하고 있다하건과 그의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불교를 발전시킨 큰 별임에 틀림없다.

<애기꾼> 전현서

日 최고 아이돌마저 감화시킨 대담 도량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⑧ 나라 야쿠시지



일본 나라 7대 사찰 중 하나인 야쿠시지(藥師寺)의 전경. 동서 대담과 회랑은 신라 사천왕사에서 시작된 쌍탑 일곱당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쿠시지의 동탑. 현재는 해체 복원 중이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는 아이들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역시 일찍이 아이들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다. 총 48명의 소녀들로 구성된 'AKB48'은 현재 일본 국민 걸그룹으로 그 인기는 한국의 '소녀시대'와 비할만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자. 당대 최고의 아이돌들이 사찰의 법당 신축 법회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처님께 헌정하는 콘서트를 개최한다면? 실제 이런 일이 일본 나라 야쿠시지(藥師寺)에서는 있었다.

나라 천도 1300주년을 맞았던 2010년 야쿠시지는 강당 신축을 기념하는 행사를 9월 26일 개최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회와는 다른 행사였다. 당대 최고 아이돌 걸그룹 'AKB48'가 '꿈의 꽃잎' 등을 타이틀로 장대한 공연을 펼쳤기 때문이다. 앞서 6, 7월에는 유명 남성 아이돌 가수 도모토 쥬시(키키즈 소속)가 단독 콘서트를 같은 자리에서 진행했다. 두 공연 모두 새로 태어난 야쿠시지에서 자신의 공연을 부처님께 봉헌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공연 소식은 대중적 친밀감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 야쿠시지는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찰이 됐다. 스스로 고찰에서 공연을 자처하는 유명 아이돌이 있다니 한국 불자로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일이기도 하다.

아이돌 그룹을 불러들여 신축 법당 기념행사를 할 정도로 파격을 보여주는 야쿠시지이지만 본래는 법상종의 본산으로 나라 7대 사찰 중 하나다.

680년 덴무 천황이 황후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창건한 야쿠시지는 발원자인 덴무 천황 때 건립되지 못하고 698년 지토 천황대에 이르러 완성된다.

원래의 야쿠시지는 아스카 시대에 일본의 수도였던 후지와라코에 세워졌으나 황실이 새로운 수도로 이전한지 8년 후에 나라로 이전됐다. 오랫동안 야쿠시지는 수도 이전한 후에 718년에 현재의



일본 아이돌 걸그룹 'AKB48'이 2010년 야쿠시지 강당 앞 특설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신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일본편>에서 동탑을 음악과 비유한 구절을 통해 그 장엄함을 가늠할 뿐이다.

"100여 년 전 문화재 조사 차 야쿠시지에 온 페놀로사는 야쿠시지 동탑을 보는 순간 저것은 '얼어붙은 음악'이라고 감탄했다. 그의 가르침대로 동탑 앞에 서 있으면 마치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이 건축적으로 형상화된 듯 리드미컬한 울동감을 받게 된다."

동서 대담에 금당을 중심으로 회랑이 둘러쳐진 야쿠시지의 건축 구조는 신라 시대의 사천왕사에서 시작된 쌍탑 일곱당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의 불교 건축이 현재의 야쿠시지를 있게 한 시금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韓 사천왕사와 비슷한 쌍탑 구조 원형 간직한 동탑, 현재 보수 중 국보 약사 삼존상 장엄함 눈길

위치는 이전됐다고 여겨왔지만 1990년대에 후지와라코에의 야쿠시지 터가 발굴되면서 두 개의 야쿠시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973년에 화재로 절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1528년의 화재로 금당이 소실됐다. 오랜 불사 끝에 1976년에 금당이 재건되기 시작해 현재는 사찰 전체가 복원된 상태이다.

야쿠시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재는 본당과 함께 대칭적으로 서 있는 동서 대담이다. 이중 동탑은 야쿠시지의 유일한 8세기 건축물이다. 이 탑은 하쿠호 시대와 덴포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일본의 가장 정교한 불탑의 하나로 여겨진다.

목탑은 삼층탑이지만 차양지붕 때문에 삼층탑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들게 한다. 특히 동탑의 경우 서탑보다 30cm가 크게 만들어졌다. 나무가 수축되는 성질을 고려해 200년 후에는 같은 높이가 된다고 한다. 답사 당시에는 동탑이 해체 복원 불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위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유희준 명지대 교수가 자

국보로 지정된 금당의 약사 삼존불도 눈길을 끌게 하는 성보 문화재다.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는 약사여래와 두 협시보살은 그 크기도 웅장하며 품만한 조각기법은 자애로움을 자아낸다.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낸 청동주조법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다. 여기에 하늘을 타오르는 듯한 뒤편 광배 역시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다.

이런 모든 성보들을 품고 있는 야쿠시지는 사찰 자체만으로도 나라 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최고 아이돌마저 매료시킨 힘의 원동력은 여기 있었다. 앞서 소개한 도모토 쥬시이는 공연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 이렇게 글을 남겼다.

"이번 저의 고향인 나라에서 세계유산인 야쿠시지에서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나라는 '일본문화 원점'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원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하늘 아래서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음에 저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Advertisement for Ma-hyeon Tours (마하연 투어) featuring images of Buddhist sites and people.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Advertisement for Myanmar tours (미얀마 직항 "초특가") listing destinations like Yangon, Bagan, and Mandalay with prices.

Advertisement for Ma-hyeon travel agency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listing various Buddhist pilgrimage routes and prices.

Contact information for Ma-hyeon Tours: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including address and website details.